

# 방화범 어쩌나... 대책 없어 시민들 불안감 호소

## SOCIETY

2025년 4월 25일 금요일

### 광주·전남 최근 5년간 293건·80명 사상자 발생 재산피해 21억원...“신상 공개해 경각심 높여야”

최근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도 방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시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4일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광주·전남의 방화 의심 화재 건수는 총 293건(광주 113건·전남 180건)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방화로 인해 27명(광주 10명·전남 17명)이 숨지고 53명(광주 24명·전남 29명)이 다쳤으며, 21억3774만원(광주 6억435만원·전남 15억3333만원)

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방화 의심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0년 59건(사망 5명, 부상 10명), 2021년 45건(사망 3명, 부상 4명), 2022년 66건(사망 5명, 부상 9명), 2023년 64건(사망 9명, 부상 8명), 지난해 59건(사망 5명, 부상 22명)에 달한다. 재산 피해는 2020년 2억6458만원, 2021년 2억5034만원, 2022년 5억6331만원, 2023년 5억6721만원, 지난해 4억9225만원이었다. 실제로 광주·전남에서는 방화 관련 화

재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자신의 차량에 불을 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60대 남성 A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차량 엔진룸 등이 불에 타 소방 추산 440만원 재산피해가 있었다. 과거 다른 범죄로 실형을 살다 2023년 4월 출소한 A씨는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회에 불안이 많아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중국 국적의 60대 B씨가 영암군 삼호읍의 성인 게임장에 불을 지른 바 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해 20분 만에

불을 껐으나, B씨는 숨진 채 발견됐고, 종업원과 손님 등 4명이 중경상을 입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B씨가 인화물질을 뿌린 뒤 게임장 출입문을 잠그면서 안에 있던 사람들이 자력으로 탈출하지 못해 피해가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광주·전남은 물론 수도권에서 방화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김모씨(36)는 “교통사고나 절도 사건 등은 안전에 관심을 갖거나 보안장비를 설치하는 등 예방 방법이 있지만 방화는 예방이 사실상 무의미하다”며 “누군가 갑자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정병근 남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사소한 다툼이 불씨가 돼 극단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방화는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지난해 1월부터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 범죄가 특정경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뿐만 아니라 방화, 마약범죄까지 확대됐다”고 제언했다. 이어 “방화 범죄가 신상 공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민에게 알려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형법 제164조에서는 현주건조물 등에 방화하는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를 입히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오늘의 날씨

예보 05:48 달맞이 04:03  
예보 19:13 달맞이 16:17



### 5·18 외곡·팜훼, 시민과 함께 대응 5·18기념재단, 내달 5일까지 '오월메이트' 모집

5·18기념재단이 시민과 함께 5·18민주화운동 외곡·팜훼 대응에 나선다. 5·18기념재단은 무차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외곡과 혐오 표현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 서포터즈 '오월메이트(MAYT)'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오월메이트(MAYT)는 'May Action for Truth'의 약칭으로, 외곡에 맞서 5·18의 진실을 지키는 시민 행동이자 오월의 친구(mate)를 뜻한다. 이는 '외곡을 가장 먼저 마주하는 사람은 시민'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시민이 스스로 5·18 외곡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오월메이트 활동은 5월10일~6월15일

진행되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5·18 외곡 사례를 찾아 제보·신고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안내자가 주간 활동을 공지하면, 참가자는 원하는 활동을 선택해 수행하는 방식이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10분 이내로 수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1회 이상 활동을 한 참가자에게는 활동 인증서가 발급되며, 활동 횟수에 따라 5·18기념품이 제공된다. 모집은 오는 5월5일까지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bit.ly/오월메이트1)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알람·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광주·전남 공공기관 채용설명회 24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광주·전남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에서 취업 준비생들이 인사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광주·전남서 가장 빈발한 감염병은 'CRE' '수두'

###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감염병 연보 발간

광주와 전남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감염병은 각각 CRE(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과)와 수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는 국가 감염병 감시 시스템에 신고된 법정 감염병 현황을 분석·정리해 '2023년도 호남권 감염병 감시 연보'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연보는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 감염병 신고 자료를 통합한 첫 감시 자료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23년 전수감시감염병(66종)의 통계와 과거 통계(2001~2023년), 다빈도 발생 감염병 분석 내용이 담겼다.

최근 10년간 법정 감염병 발생률 추이는 전국과 호남권 모두 2018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했으며, 지난 2023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호남권역 다빈도 감염병은 수두, 결핵, 유행성이하선염, 쯤쯤기무시증, C형간염, CRE 감염증이었다. 지난해 전국보다 높은 주요 감염병(10만명 기준)은 수두(73.8명), 결핵(35.9명), 쯤쯤기무시증(34.9명), C형간염(16.0명)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다빈도 감염병은 광주·전남은 수두(81.1명), 쯤쯤기무시증(56.5명)가, 결핵(45.8명), 전복은 CRE(78.0명), 수두(52.6명), 쯤쯤기무시증(41.3명), 제주는 수두(135.7명), CRE(36.1명), 유행성이하선염(23.4명)이 높았다.

지난 2023년 호남권의 법정감염병 신고 환자 수는 1만4080명(248.8명/10만명)으로, 2022년 1만1503명(211.5명/10만명) 대비 22.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관계자는 “이번 연보는 호남권에서 자체 감시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공식 첫 감시 통계자료다”며 “보건정책, 학술연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관련 보건기관 등에 배포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

### 한빛원전, 전동기 베어링 모조품 발견

92개 자재...“무관용 처벌” 한빛원전자재발견소 냉각재의 정화과 농도를 조절하는 충전펌프 등에 쓰이는 '전동기 베어링'이 모조품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24일 한빛원전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4월 초 한빛원전 1호기에 납품된 전동기 베어링의 일부가 모조품인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부품을 납품한 업체 2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원자력발전소의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한빛원전자재발견소가 가장 많은 모조 부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빛원전본부는 SKF(스웨덴)사 제품

인 전동기 베어링 28품목 242개를 전수조사해, 제작사 제품내역서(SKFS사 명) 총 7건 중 1건의 위조문서를 확인했고, 92개의 자재가 모조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모조품인 전동기 베어링은 SKF사의 로고와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에서 제작됐다고 표기돼 있으며, 육안으로는 정품과 식별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전동기 베어링은 한빛본부 자재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발전소에 출고된 72개 자재는 순정품으로 조사됐다. 모조품 자재는 단일계약 건으로 영광군 흥농읍에 소재한 업체에서 납품했다고 설명했다. 한빛원전은 모조품 납품과 관련해 발주, 계약, 인수검사 등 조달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영광·정규표 기자 ykjg98@

## 장애인 6쌍 합동결혼식...“우리 결혼했어요”

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광주서구장애인복지관이 주관하고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고액기부자 모임 '서구아너스'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이는 장애인에게 웨딩 지원을 통해 경제적, 심리적 지원으로 평등한 기회를 제공,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이들의 행복한 가정생활, 결혼의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서구장애인복지관 등은 지난 3~11월 관련 저소득(중위소득 100%)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고, 최종 6쌍이 선정됐다.



24일 광주 서구 위더스웨딩홀에서 열린 '당신의 특별한 날 드림(dream) 웨딩' 합동결혼식에서 김이강 서구청장과 장애인 부부 6쌍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이날 결혼식은 주례 없이 서구장애인복지관장이 '축복의 증인'으로 나서 부부 심계명을 낭독했고 김이강 서구청장과 서구아너스 회원들이 덕담을 전하며 부부의 앞날을 축복했다. 또 축하공연과 기념촬영, 피로연이 따

랐한 분위기가 속에서 이어졌다. 특히 장애인에게 결혼을 위해 위더스웨딩홀, 수어통역센터, 서구농아인센터 등이 협력했으며 전문 수어통역사가 실시간으로 식 전례를 통역해 모든 하객이 하나 된 축제의 장이 만들어졌다. 김이강 정장은 “오늘의 '드림웨딩'은 나눔과 연대가 주민의 삶을 따뜻하게 바꿀 수 있는 감동적인 사례다”며 “서구는 앞으로도 꿈을 현실로 바꾸는 기적 같은 순간들을 계속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 광주전 불법 시설물 철거 예고

만년필 ○·광주 동구가 내남동 79번지 일원 광주전면에 있는 불법시설물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 24일 동구에 따르면 동구 내남동 79번지 일원 광주전 강변(내남진아리제2차~고동교 일원)에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경작물, 펜스 등 불법시설물이 있는 사실을 재확인. 동구는 앞서 경각금지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과 말뚝을 설치한 뒤 지난 3월 불법시설물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 계고(1차)를 진행. 하지만 원상복구 등이 이행되지 않아, 2차 행정대집행 계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시. 계고문에는 지속적인 민원 발생, 도시미관 훼손 등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지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돼 5월15일까지 원상복구(자진철거)를 지시. 송태영 기자 sty1235@